

완판본 간기에 나타난 ‘귀곡(龜谷), 귀동(龜洞), 봉성(鳳成)’에 대한 연구*

이 태 영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한글고전소설과 ‘봉성, 龜洞, 龜谷’ |
| 2. 완주군 구이면의 지리·문화적 배경 |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왜 이 지역에서 여섯 종류의 한글고전소설이 발간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완판본의 간행 기록에 나타나는 ‘龜谷’, ‘龜洞’, ‘봉성’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지명 ‘龜洞’을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전주 부근의 ‘完南 龜石里’로 처리하여 연구에 큰 착오를 일으켰다. 『별월봉기』의 간기에 나오는 ‘龜谷’을 인근 마을인 ‘石龜谷’으로 잘못 해독하였다. 그래서 ‘구곡’을 최근까지 ‘원석구’ 마을로 잘못 알고 있었다. ‘봉성’은 ‘龜洞’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였다. ‘봉성’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인 여건이 이곳에서 책을 생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간기에 나타난 ‘구곡’과 ‘구동’이 현재 완주 지역에 있는 ‘귀암골’ 마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간기에 나타나는 지명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을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발간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주제어 :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간기, 귀곡, 귀동, 구석리, 봉성

1. 서론

刊記란 책의 간행기록을 말한다. 간기에는 대체로 연호, 간행년, 간행월일, 간행지, 간행처, 간행방법, 간행자 등을 기록한다. 옛 책의 刊記에 나타나는 지명은 대체로 책의 간행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지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고는 그간 위치가 불분명했던 지명, 잘못 해독한 지명과 잘못 추정한 지명 등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는 간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온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에 나타나는 지명을 일부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태영, 2014 참조)

- 가. 完山, 완산, 完山 北門內, 完山 梁冊房
- 나. 完南, 完西, 完西溪, 西溪
- 다. 豊沛
- 라. 完南 龜石里, 完龜洞, 龜洞, 龜谷, 完西 杏洞, 봉성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의 특징은 ‘完山’과 같이 책을 찍어낸 도시 이름을 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줄여서 ‘完’이라 쓰면서, ‘完南, 完西’와 같이 뒤에 방위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 완판본과는 달리,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경우에는 ‘由洞, 紅樹洞, 布洞, 武橋’ 등과 같이 동네 이름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 『구운몽상』 壬戌(1862) 孟秋 完山開板
『구운몽하』 丁未(1907) 仲花 完南開刊
『삼국지』 咸豐 己未(1859) 紅樹洞 新刊
『진운치전』 丁未(1847) 仲春 由谷 新刊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에도 위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龜谷’, ‘龜洞’, ‘봉성’과 같이 동네 이름이 나온다.

본고에서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 중에 동네 이름이 나오는 ‘完南 龜石里, 完龜洞, 龜洞, 龜谷, 봉성’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간기에 나오는 ‘完南 龜石里’와 ‘完龜洞’이 같은 지명인지 아닌지를 밝힐 것이다. 둘째, 『별월봉기』의 ‘龜谷’과, 1907년, 1908년에 나오는 ‘龜洞’의 지명이 같은지 다른지를 밝힐 것이다. 셋째, ‘龜洞’의 위치와 ‘龜洞’이 가지는 역사적 특징을 밝혀 한글고전소설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 『도옹전』에 나오는 ‘봉성’의 지리적 위치를 밝혀서 ‘봉성’과 ‘龜洞’의 지리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2. 완주군 구이면의 지리·문화적 배경

전주 高德山은 해발 603.2m의 산으로, 북서쪽으로는 전주시의 南固山城과 흑석골(黑石洞, 鶴山)로 이어지고, 서남쪽으로는 구이면 平村과 鯨角山으로 이어지는 전주의 중심적인 산이다. 고덕산의 서북쪽으로는 남고산성이 자리한다. 이 지역에는 忠景祠, 關聖廟, 南固寺와 같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남고산성은 전주의 남쪽에 있는 산성이다. 忠景祠는 임진왜란 때 전주성을 지킨 공으로 忠景이라는 시호를 받은 李廷鸞을 모신 사당이다. 關聖廟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무신으로 받들어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1) 이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별월봉기』, 『별월봉기』와 같이, 발간 당시의 소설의 이름과 현재 소설의 이름을 혼기하고 있다.

南高寺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고덕산에 있는 절이다.

여기서는 주로 고덕산의 서남쪽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전주 ‘흑석골’²⁾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

전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많은 한지를 만들었다. 무려 8-900여 년 동안 전주와 완주일대에서 한지가 생산되었고, 1800년대부터 풍남동을 중심으로 한지가 만들어져 오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물이 차츰 나빠지고, 또 1937년 전주천에 방천(防川)이 생겨 물길이 바뀌면서 1940년대에 한지 공장들은 서학동 흑석골로 옮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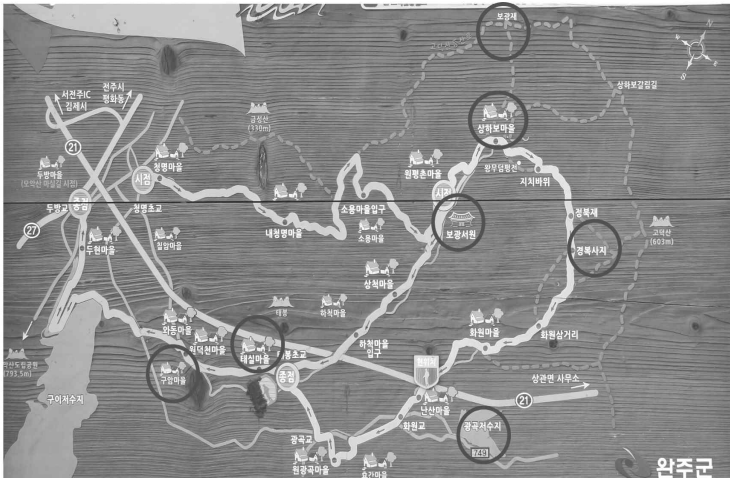
흑석골에서 작은 고개를 통하여 구이면 평촌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학산 보광재(普光峙)이다. 전주 흑석골 버스 종점에서 보광재까지는 약 1.8km이다. 보광재를 넘어가면 바로 완주군 구이면 평촌이 나온다. 보광재에서 평촌리까지는 약 1km이다. 따라서 흑석골에서 평촌까지는 약 2.8km이다. 평촌은 ‘들이 넓은 마을’의 뜻으로, 연안 이씨의 집성촌이었으며, 마을 앞 박성동에는 오래된 제실이 있다.

平村里는 본래 전주군(1935. 10. 1일 이후는 완주군) 구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평촌리, 상보리, 하보리, 소용리, 상척리, 하척리, 주리리, 태실리, 박성동 일부’를 병합하여 평촌리로 하고 구이면에 편입하였다.(완주군지, 340쪽 참조)

普光寺址는 구이면 평촌리 보광재에서 약 1km 아래 上普 마을 모정 근처에 있다. 백제시대 창건된 고찰로 화엄종계의 사찰이었다고 한다.(완주군지, 1245쪽 참조) 이 지역의 명칭 중 ‘上普 마을’과 ‘下普 마을’이 있는데, 이는 ‘普光寺’를 두고 이름한 것이다.³⁾

2) 전주 사람들은 ‘흑석골’이라 부른다. 그러나 옛 책의 간기에서는 ‘黑石洞’으로 표시되어 있다.

『全州李氏族譜』(3권) 崇禎紀元後五乙丑(1925)丁月日下澣黑石洞齋閣刊印



<평촌, 구암 마을 현장 지도 - 완주군 제공>

景福寺址는 구이면 평촌리에 있다. 경복사는 普德和尚에 의해 고구려 보장왕 9년(650) 6월에 창건되었다.⁴⁾(완주군지, 1244쪽 참조) 보덕화상의 제자에 의해 대원사, 금동사 등의 사찰이 이곳 구이 근교에 창건되어 열반종이 유포된 것을 알 수 있다.(완주군지, 1241쪽 참조) 현재 입구에 경복사지를 알리는 간판이 있고, 위에 오르면 넓은 터가 보이고, 그 위에 많은 돌들이 놓여 있다.

葆光書院은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이며, 양반들의 세력기반이었다.葆光祠는 현종 46년(1720)에 창건,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거, 1971년 복원한 사우이다. 현재 李彦福, 陸大春, 李至誠, 李至道, 梁夢說, 金峻業, 柳廷, 李后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완주군지, 1169쪽 참조)

- 3) 2006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 검색 프로그램에는 ‘보광사’의 기단석 사진이 나와 있다.
- 4) 1976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술 조사단에 의해 구이면 평촌리 보광촌 못미처 산중턱에서 ‘景福寺’라는 글자가 새겨진 瓦片을 습득하여 그곳 주위가 경복사지라는 것이 밝혀졌다.

胎室은 왕가 아기의 태(胎)와 태반(胎盤)을 묻었던 곳이다. 예종(1468-1469)은 아버지인 세조(世祖)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 8대 왕으로 등극했다가 재위 기간 1년 만에 병으로 죽은 단명한 임금이었다.睿宗大王 胎室碑는 원래 완주군 구이면 원덕리 태실마을 뒷산에 세워져 있었다. 이 곳은 ‘龜洞’의 바로 앞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어 구이초등학교 북쪽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1970년 전주 경기전 내에 옮겨 놓았다.

2.2. ‘봉성’, ‘龜洞’의 문화·지리적 여건

평촌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완주군 구이면 光谷里 난산마을이 나오고 바로 위에 저수지가 보이는데 그 저수지에 있던 마을이 ‘봉성’(鳳成)이다. 그러니까 봉성은 평촌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은 광곡 저수지가 되어버린 곳으로 저수지 중간쯤 산이 시작되는 곳에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물론 지번은 남아 있다. 이곳에는 나무와 숲을 해서 파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지역은 임실군과 완주군에서 전주로 오가는 길목이었다. 1893년에 발행된 『도옹전』은 ‘광서십구연계스오월 일봉성신간이라’는 간기를 갖는데 여기에 ‘봉성’이란 지명이 나온다.⁵⁾

봉성에서 구이 동적골 쪽으로 내려가면 넓은 들판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이다. 이 마을은 ‘龜洞, 귀동골’이라고 불린다.⁶⁾ 마을 뒷산에 거북과 같은 바위가 있어서 생긴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약 380년 된 마을로 면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1757년부

5) ‘봉성’은 완주군 高山, 김계군 金溝에도 보인다. 고산의 고려시대 지명이 바로 ‘鳳城’이다. 금구의 옛 이름이 ‘봉성’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2017년도 제61회 국어문화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할 때 토론자로 도움을 준 황용주 선생께 감사드린다.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네 팸렛터에는 ‘귀동골 팸렛터’라는 표지판이 있고, 동네 입구에는 ‘귀동골 농장’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귀동골’로 부르고 있다.

터 1765년 사이에 편찬된 전국 지리서인 ‘輿地圖書’에는 ‘龜耳洞面, 仇耳洞面’으로 나온다.(변주승, 2009:38) 구암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천리에 속하게 되었고, 덕천리에는 구암을 비롯 원덕천(元德川), 지등(芝登), 와동(瓦洞), 칠암(七岩), 청명(淸明) 등의 마을이 있다.



<귀동 마을의 거북바위>

구암마을 경로회관 앞에 있는 2002년에 작성된 ‘구암마을 유래비’에 소개된 유래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암마을 유래비>

약 六百年여 전에 火時에 살았으며 후에 함안리 둔전말재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전해오며, 본 마을에 고인돌이 20여 개 이상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中心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後 조선 中宗 17年 西紀 1522年, 약 480年 전에 水原 金氏, 東萊 鄭氏, 延安 李氏가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高德山 줄기 따라 옆에는 鯨角山, 앞에는 母岳山 중심지에 장엄한 대명당 虎體峯 산하에 신령한 거북바위의 형상이 있으니 그 둘레가 19 미터, 높이 4 미터에 이르고, 아래로 9개의 작은 거북 형상이 있으니 거북의 子孫이라 부르며 거북 등에 있는 버선뽕 모양은 장수가 쉬어간 자취가 남아 있다. 그 신령한 거북 형상을 따라 龜洞골 龜巖으로 불렸으며 당시 行廳 場所는 본 마을 1039번지에 위치하고 창집은 973번지에 있었다. 행원님은 崔忠一 분이 관장하였으며 일제치하에 供出을 목적으로 雲岩도로가 신설되면서 항가리 구면정으로, 지금의 면사무소로 이전하였다. 龜洞골 龜巖은 약 370년을 유지하고 내려오던 중, 고종 말기 乙巳조약이 체결되면서 국권이 왜정으로 바뀌면서 거북 귀자가 쓰거나 부르기가 어려워 아홉 九로 고쳐 쓰기 시작하면서 龜洞골을 九耳면으로, 귀암을 구암으로 현재까지 부르고 있다. 西紀 2002年 8月 日 豎

이 유래비에서 알 수 있는 ‘龜洞’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유래비를 세울 당시 기원이 약 480년이 된 마을이다. 둘째, 고인돌이 약 20여 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중심지였다.⁷⁾ 셋째, 대

명당인 虎體峯 아래에 귀동 마을이 있다. 넷째, 지금의 면사무소인 行廳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구암마을로 약 370년을 유지하였다. 여섯째, 현재 ‘구이면(九耳面)’은 이 마을의 이름인 ‘龜耳洞面’에서 유래하였다.

그렇다면 완관본 한글고전소설이 구이면 ‘봉성’과 ‘龜洞’에서 발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에서 소설이 출판된 이유 중 첫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일 것이다. 조선 후기에 구이면 지역은 책을 발간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을 발간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목판 재목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완주군 구이면은 동으로는 고덕산, 서쪽으로는 모악산, 남으로는 경각산, 북쪽으로는 금성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목판을 만드는 재목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⁸⁾

둘째, 책을 발간하기 위한 조건인 한지의 생산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게다가 구이면은 조선시대 소양면, 상관면과 더불어 지소가 많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희(2014:315)에서는 『楮竹田事實』을 근거로 지장의 수를 놓고 볼 때, 전라도에서 전주가 최대의 종이 산지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楮竹田事實』에 적힌 다편 산지를 근거로, 전주부 안에서 최대 종이 산지는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등 3개 면으로 추정하고 있다.⁹⁾ 최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완주군 구이면 지역

7) 2006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 검색 프로그램에는 평촌 지역의 지석묘 사진이 여러 장 나와 있다.

8) 실제로 전라감영에서 책을 발간할 때 사용한 목판의 재목으로는 자작나무과로 식별된 바 있다. 이나무들은 전라도지방에 자생하는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혹은 박달나무 종류로 사료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홍성덕, 2005:82 참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책판으로 사용되는 목재로 대추나무, 배나무, 가래나무를 들고 있다. 해인사 대장경의 수종은 대부분 남부지방에 많이 서식하는 산벚나무가 주종임이 밝혀졌으며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책판의 수종은 단풍나무와 박달나무로 조사되었다.(안준영, 2014:44 참조)

9) 완주군·전주역사박물관(2011)에서는 2011년 완주군 한지 유적 조사에서 총 51개의 지소를 확인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양면 23개소, 상관면 11개소, 화산면 7개소, 구이면 6개소, 동상면 3개소, 비봉면 1개소

에 6개의 지소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원안덕 마을에 3개소, 구안덕 마을에 1개소, 장파마을¹⁰⁾에 1개소, 원항가 마을에 1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2011:82) 이 마을들은 닥을 재배하여 생산한 고장으로 종이를 만드는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원항가 마을은 일제강점기 이후 면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다. 이 마을은 구암 마을과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관련된 기술들이다. 따라서 완판본이 나온 구암 마을, 봉성 마을 등에서도 조선시대에 닥나무가 재배되고, 한지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물도 매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나무도 많고, 닥나무가 재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한지가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셋째,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옆마을인 평촌리 상보 마을을 거쳐 학산을 넘어 전주 흑석골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소비의 중심지인 전주의 중심지와 통행이 매우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넷째, 인근 마을인 ‘龜洞’은 조선시대 면청이 있던 구이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책의 출판이 매우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 ‘龜洞’에서는 1823년 완판본 최초의 한글고전소설이 발간되었다. 이어서 1907년, 1908년에 계속 소설이 발간되었다.

다섯째, 이 지역은 ‘보광서원’이 있어서 지식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 ‘승명배청’의 의식을 가지고 ‘忠’을 가장 높은 이상으로 가진 지식인들은 『조웅전』과 같은 영웅소설에 매료되었을 것이고 이들이 제일의 소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다.

10) 장파 마을은 조선시대에 도자기를 구운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곳 역시 닥나무 재배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 곳에 있던 장파사(長波寺)라는 절에서는 1646년, 1654년 『妙法蓮華經』을 발간하였다. 이미 조선시대 중기에도 한지 생산을 하던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글고전소설과 ‘봉성, 龜洞, 龜谷’

3.1. 『도옹전』과 ‘봉성’(鳳成)

전라북도 완주군 ‘九耳’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고장이기도 하다. 전주에서 구이로 가다보면 옛 도로에 동적골이 나온다. 이 동적골에서 좌회전하게 되면 평촌으로 가는 길과 광곡으로 가는 길로 나뉜다. 광곡에서 한일장신대로 넘어가는 옛 길에 작은 저수지가 보이는데 그 아랫마을이 난산이다. 바로 그 난산마을 위의 저수지가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인 『도옹전』의 간기에 나오는 봉성이다.¹¹⁾ 그 간기에는 한글로 ‘광서십구연계스오월일봉성신간이라’고 쓰여 있다. 간기의 말미에 ‘-이라’와 같이 이야기 구술체로 쓰인 것으로 보거나 글꼴로 보면 완판본이 틀림없다. 완판본의 경우, 제목이나 한글 간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라’의 어미를 보여주고 있다. 유춘동(2013)에서 봉성판 『도옹전』의 서지사항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 판본은 전체 95장이며, 판식은 매면 12행, 행당 27-30자 내외로 동일하다. 권 1-2에는 간기가 없고, 권3의 22장 전엽에 간기가 있다. 이 판본의 내용은 ‘정사-완서행동본’과 동일하다. 이 판본은 ‘정사-완서행동본’을¹²⁾ 저본으로 하였지만 분권의 위치는 다르다.”(유춘동, 2013:48)

『도옹전』의 경우, 한글 간기가 많은 게 특징이다.(이태영, 2014 참조)

『도옹전』 개유(1873)초동완서등간¹³⁾

- 11) 유재영(1993:50)에는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光谷里)의 자연마을에 봉성(鳳城, 鳳成)이 제시되고 있다.
- 12) 여기서 ‘정사-완서행동본’은 상권은 ‘丁巳孟秋開板’이라는 간기가, 권3에는 ‘同治五年0000完西杏洞開板’이라는 간기가 있는 1866년에 발행한 판본을 말하는 것이다.
- 13) 유춘동(2013:44)에 따르면, 이 판본은 현재 단국대 울곡도서관, 김종철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웅전』 광서십구연(1893)계스 오월일 봉성 신간이라
 『도웅전』 무술(1898) 중추 완산 신판
 『도웅전』 임진(1892) 완산 신판이라
 『도웅전』 녁남각슈의 박이력 서봉운
 『삼국지삼권나라』 님진(1892) 완산 신판이라

실제 봉성에서 발간된 『도웅전』의 구성과 간기는 다음과 같다.

도웅전 권지일(36장), 조웅전 권지이(37장), 조웅전 권지삼(21장), 광서십구연(1893)계스오월일봉성신간이라.

이 간기는 한자로 바꾸면 ‘光緒十九年癸巳五月日鳳成新刊’으로 되었을 것이다. 광서(光緒) 19년 계사년(1893) 오월에 봉성(鳳成)에서 『도웅전』을 발간하였다는 기록이다.

유춘동(2013:43)에 따르면, 『조웅전』(趙雄傳)은 전주에서 1866년 처음 간행되고 1873년, 1892년에도 간행되었으며, 1893년 구이면 봉성에서 간행된 뒤에 1895년, 1898년, 1903년, 1906년, 1909년, 1911년(서계서포 판권지), 1916년(다가서포 판권지), 1932년(양책방 판권지) 등 계속적으로 간행한 아주 인기가 있는 영웅소설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태인본을 전주에서 발간한 『孔子家語』의 배지에 인쇄된 『도웅전』의 글꼴은 『구운몽하』의 글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이 배지에 보이는 책은 류탁일(1985:98)에서 언급된 ‘丁巳孟秋開板’의 간기를 갖는 1857년본 『도웅전』이나 그 무렵에 찍은 책으로 추정된다.(이태영, 2016:288 참조) 한편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도웅전상이라』, 『조웅전 권지삼이라』는 합본으로 ‘完府新刊’의 간기를 갖는데 1800년대 초에 발행된 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까지 언급된 완판본 『도웅전』의 간기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00년대 초, 完府新刊, 1857 丁巳孟秋開板, 1866 ‘同治五年(1866)■■■■完西杏洞開板’, 1873 계유초동완서등간, 1892 完山新刊壬辰, 임진(1892) 완산 신판



이라, 1893 광서십구연계사오월일봉성신간이라, 1895 乙酉孟秋完西新刊, 1898 무술중추완산신판, 戊戌季冬完南新刊, 1903 光武七年癸卯夏完山北門內重刊, 1906 丙午孟春完山開刊, 1909 己酉仲秋完山改刊, 1911년(서계서포 판권지), 1916년(다가서포 판권지), 1932년(양책방 판권지)

『조웅전』은 조웅이란 영웅이 반역자 ‘이두병’을 물리치고 중국 송나라 황실을 재건하는 이야기이다. 모든 고대소설처럼 이 소설에서도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면서 권선징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전주에서는 목판본으로, 서울에서는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발간되었다. 대체로 경판본과 완판본으로 나뉜다.

<봉성판
『조웅전』
간기>

3.2. 『화룡도』, 『소대성전』, 『장경전』, 『열여춘향슈절가』와 완산 ‘龜洞’

전북 전주군 ‘龜洞’에서 발간된 책들은 완판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1907년과 1908년에 발행되는데, 이는 서계서포본이 주로 1911년의 판권지를 보이고, 다가서포본이 1916년의 판권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책의 간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화룡도』 丁未孟秋龜洞新刊 『소대성전』 戊申仲春完龜洞新刊¹⁵⁾
『장경전』 戊申孟夏完龜洞改刊 『열여춘향슈절가』 戊申中夏龜洞新刊

1) 82장본 완판 龜洞本 『화룡도』 (華容道)¹⁶⁾

14) 이 책 중에서 『화룡도』, 『소대성전』, 『장경전』은 1916년 다가서포에서 재발간되었다.

15) 류탁일(1985:188)에 따르면 ‘蘇大成傳의 異本은 A인 ‘戊申仲春完龜洞新刊’의 多佳書舖本과 B C D인 ‘乙酉孟春完山新刊’의 西溪書舖本과 E F인 無刊記梁册房本の 3種으로 확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룡도』는 판소리의 ‘적벽가’를 말한다. ‘적벽가’는 신재효(申在孝)가 개작하여 정착시킨 판소리 작품의 하나로 『화룡도』라고도 한다. 판소리로 불리는 ‘적벽가’나 독서물로 읽혔던 『화룡도』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삼국지연의』의 일부가 판소리화된 것을 신재효가 개작하면서 정착되었다. 이 작품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여 화룡도로 도주하는 조조를 정욱이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완판본 『화룡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화룡도권지상이라』 34장본 『화룡도권지하라』 48장본 戊申(1908)春完西溪新刊 <1911, 서계서포본>
- 『화룡도권지상이라』 34장본 『화룡도권지하라』 48장본 丁未(1907)孟秋龜洞新刊 <1916, 다가서포본>
- 『화룡도권지상이라』 40장본 『화룡도하권이라』 44장본 양척방 戊申(1908)八月完山梁冊房開刊

여기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에 나오는 ‘(完)龜洞’과 ‘完南 龜石里’를 비교해 보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귀동본 『화룡도』 1쪽과 간기>

1907년에 ‘龜洞’에서 발행된, 판소리계 소설 『화룡도』에는 ‘丁未孟秋龜洞

16) 여기 소개하는 『화룡도』의 이미지는 박순호 교수 소장본이다.

新刊'이란 간기가 보인다. 같은 해에 '完南龜石里'에서 나온 『초한전권지상이라』에는 '丁未孟夏完南龜石里新刊'이란 간기가 나온다. 같은 해에 나온 책이 만일 한 책방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처럼 간기를 달리 기재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龜洞'과 '完南 龜石里'는 간기의 표기상으로만 보아도 분명히 다른 서점이었을 것이다. 그간 '完南 龜石里'의 경우, '龜洞'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¹⁷⁾, 실제 1908년에 나온 고전소설을 검토해본 결과, '龜洞'에서 나온 고전소설과 글꼴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龜洞'은 '龜石里'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에 『열여춘향슈절가』, 『유충열전』, 『초한전』을 발행한 '完興社書舖'의 주소는 '全州郡 南門外 九石里 1統 1戶'로 되어 있다. 일제가 지명의 '龜'자가 어려워 '九'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때의 '九石里'는 '龜石里'와 같다.¹⁸⁾ 따라서 '完南 龜石里'의 간기를 갖는 『초한전』은 '完興社書舖'에서 발행되었을 것이다.

『초한전권지상이라』는 상권이고 하권은 『서한연의권지하라』이다. 이 하권의 마지막 쪽에 간기가 있다. 그 간기는 1907년을 보이는 '丁未孟夏完南龜石里新刊'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판권지가 붙어 있는데 '大正 5년'(1916년)에 다가서포에서 발행한 판권지가 붙어 있다.

류탁일(1985:195)의 '완판 초한전의 유포본'이란 도표에 따르면, '丁未孟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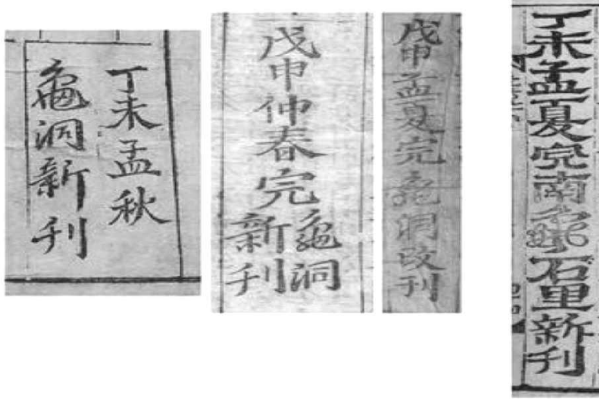
17) 류탁일(1985:208)에는 『장경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장경전』도 原刻板의 朽敗나 剝缺이 심하여서 뒷날 補刻되었는데 그 補刻時期와 장소는 下卷末(65b)에 새겨진 刊記에서 알 수 있다. 즉 그 刊記에 '戊申孟夏完龜洞改刊'이라 되어 있어서, 1908년 完山 龜石里에서 補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補刻된 板은 上卷에서 제7, 13, 14, 15, 17, 18, 29, 30, 31 장과 下卷에서 제 43, 45, 51, 58, 59, 60, 64, 65 장으로 모두 17 張인데, 그 서체는 從厚橫薄한 楷書로서 板刻이 좋은 편은 못 된다.

이 補刻本에는 1916년 多佳書舖의 版權紙가 붙어 있기 때문에 多佳系列本이다. 이에 原刻本을 '半草原刻本'이라 하고 補刻本은 '戊申補刻本'이라 命名한다.”

18) 전북 완주군 '龜耳'의 경우도 '九耳'로 쓰이는 것은 일제가 바꾸었기 때문이다.



<龜洞本과 龜石里本の 간기 비교>

完南龜石里新刊의 간기가 있는 『초한전』 E 본을 완홍사서포본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뒤 배지에 완홍사서포 간행의 『유충렬전』 上13a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완남 구석리’에는 완홍사서포가 있었기 때문에 『초한전』은 완홍사서포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의 두 가지 간기는 1907년에 발간된 것을 알리는 표지이다. 그러나 두 간기는 간기 표기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실제로 소설의 글꼴도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목 위의 꽃이 다르다. 『화룡도』는 연꽃인데 비하여, 『초한전』은 이엽무늬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귀동본과 구석리본의 제목 그림 비교>

『화룡도』 ‘丁未孟秋龜洞新刊’

『초한전권지상이라』 『서한연의권지하라』 ‘丁未孟夏完南龜石里新刊’¹⁹⁾

2) 74장본 완판 龜洞本 『소대성전』



<귀동본 『소대성전』 1쪽과 간기>

영웅소설 『소대성전』은 명나라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의 외아들 소대성과 청주 땅에 사는 이상서의 딸 이채봉의 이야기로, 소대성이 집안이 몰락하여 이채봉과 결혼을 못하다가, 국가에 공을 세운 후 결혼을 하고 노국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이야기이다. 『소대성전』에서도 역시 송명배척의 시대적 욕구가 표현된 내용이 보인다. 이 소설은 영웅적인 활약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려 했던 소설이다. 영웅소설이 이처럼 많이 발간된 이유는 당시의 명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풍조에도 있었지만, 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 또는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⁰⁾

완판본 『소대성전』은 『용문전』과 합책되어 있다. 완판 『소대성전』

19) 이 책은 1916년 다가서포의 판권지가 붙어 출판되었다.

20) 이 소설의 영향으로 ‘소대성이 여대치다’란 속담이 탄생한다. ‘여대치다’는 채만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휘로 표준어의 ‘뺨치다, 능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대성이 잠을 잘 자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잠꾸러기를 이르는 속담이다.(이태영, 2010:518 참조)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蘇大成 소디성전 40장 丙申(1836)夏完府新板²¹⁾
소디성전이라 43장, 용문전이라 38장 丁未(1907)春三月 完西溪新刊
소디성전이라 35장, 용문전이라 38장 戊申(1908)仲春完龜洞新刊 <1916, 多
佳書鋪本>
소디성전이라 43장 己酉(1909)孟春完山新刊 용문전이라 38장 己酉(1909)孟春
完山新刊 < 1911, 西溪書鋪本>
소디성전이라 43장, 용문전이라 38장 간기 없음 <1932, 梁冊房本>

완판 龜洞本 『소디성전』은 74장본으로 1916년 다가서포에서 재발행된
다. 이 74장본 龜洞本은 81장본인 다른 『소디성전』과 차별화된다.

3) 64장본 완판 龜洞本 『장경전』

『장경전』은 장경이 뜻을 실현하여 연왕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권선적 영웅소설이다. 영웅소설인 龜洞本 『장경전』의 경우, 간기에 ‘改刊’
으로 되어 있다. 실제 필자가 소장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초간본과 뒤에 판
목을 새로 한 이본이 섞여 있어서 改刊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판목
을 한 1908년 『장경전』은 같은 해에 나온 『소디성전』과 글꼴이 같다. 이
책의 서체는 구운몽과 같은 양반 서풍이 풍기는 것으로 이 책의 원간본은
구운몽의 간행연대인 1862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유탉일, 198) 龜洞
本 『장경전』은 원간본에다가 보각을 첨가한 보각본이다.

21) 현재 홍윤표 교수 소장본으로 1쪽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나머지는 대체
로 양호하다. 간기에 ‘丙申夏完府新板’으로 되어 있어 1836년에 ‘全州府’에
서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內題는 한자로 ‘蘇大成’, 版心題는 ‘大’라 쓰여
있다. 조웅전에 보이는 ‘ㅂ’과 ‘ㄹ’의 글자꼴과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1866년과 1890년대에 주로 발간된 조웅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원본을 볼 수 있다.(이태영, 2007:32
참조)

장경전 상권이라 33장, 장경전하권이라 31장분 戊申(1908)孟夏完龜洞改刊
 <1916, 다가서포본>



<귀동본 『장경전』 간기>

4) 완판 龜洞本 『열여춘향슈절가』

『춘향전』은 기생의 딸인 춘향이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 이몽룡과 결혼하는 이야기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양반과 평민의 신분을 뛰어 넘는 내용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이 소설은 여성 해방과 만민 평등의 시대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완판 30장본 『별춘향전』이 33장본으로 확대되어 『열여춘향슈절가』가 되는데 이 책을 흔히 ‘丙午판 춘향전’이라 부른다. 이 대본이 독자의 호응을 받게 되자, 다시 84장본으로 재확대하면서도 『열여춘향슈절가』라는 표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권 45장, 하권 39장으로 된 84장본을 『열여춘향슈절가』로 부르고 있다. 완판본 『열여춘향슈절가』는 여러 종류가 있다.

- 『열여춘향슈절가』 <丙午(1906)孟夏完山開刊>
- 『열여춘향슈절가』 戊申(1908)中夏龜洞新刊
- 『열여춘향슈절가』 (1912) 완홍사서포본
- 『열여춘향슈절가』 (1911) <完西溪書鋪>
- 『열여춘향슈절가』 (1916) <다가서포본>

1911년에 서계서포에서 발행된 『열여춘향슈절가』는 ‘戊申(1908)中夏龜洞新刊’의 간기를 갖는데 완주군 구이면 귀동마을에서 발간된 책을 저본을 하고 있다. 또한 1916년 다가서포에서 발행된 『열여춘향슈절가』는 1912년 전주 완홍사서포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1907년도의 간기를 갖는 『화룡도』에는 ‘龜洞’의 지명을 사용하였고, 1908년의 간기를 갖는 소설에서는 ‘完龜洞’의 지명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完’을 사용한 이유는 전주에서 출판된 책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당시의 완판본 고전소설의 간기에 ‘완남, 완서, 완산’ 등, 완판본임을 나타내는 도시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²²⁾

3.3. 최초의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별월봉기』와 ‘龜谷’

『별월봉기』는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고전 변안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말기 풍몽룡(馮夢龍)이 편찬한 『警世通言』 제11화인 『蘇知縣羅衫再合』이 원작이다. 중국 명나라 때 탁주지방의 소운(蘇雲)과 소운의 처정부인, 그리고 그 아들 계조가 어려운 생활을 거쳐 부귀공명을 누리는 내용이다. 부인의 정절이 강조된 소설로, 어휘와 문체에서 품격을 지닌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사대부들이 선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22) 전라도민들은 ‘完’이란 한자 음절을 ‘完山=백제(후백제)=全州=全羅道=湖南=完’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여 사용하였다.(이태영, 2013:31)

1823년 48장본 『별월봉기』가 당시 전주군 구이동면 龜谷에서 발간되었다. 丙題 맨 위에는 화문어미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 양식은 완판본의 초기 제목 양식과 같아서 이 소설이 완판본의 초기 본임을 알 수 있다. 완판본 『별월봉기』에는 전라방언이 보이지 않고 격식을 갖춘 문체로 보이기 때문에 번역본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원고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²³⁾

이제 그간 완판본 『별월봉기』의 간기에 나오는 지명이 ‘石龜谷’으로 오인된 경위와 ‘龜谷’은 과연 어디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희웅(1999:462)에는 『별월봉기』가 박순호 교수의 ‘家目’으로 ‘道光三年(1823)四月日石龜谷開板’으로 되어 있다. 이 간기는 박순호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간기를 보면 ‘道光三年??四月日龜谷開板’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를 나타내는 간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상욱(2010, 147-151)에서는 ‘道光三年癸未四月日龜谷開板’으로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石龜谷’으로 본 간기의 지명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기의 원본에서 ‘道光三年’의 뒤에 두 글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두 글자는 간기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보면 간지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1823’년은 ‘癸未’년이다. 따라서 글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癸未’임이 분명하다.

둘째, 그 뒤에 四月日이 있다. 이 형식은 간기에서 매우 일반적인 형식이다. 그간 소장자가 제시한 ‘石龜谷’으로 본다면 간기에서 ‘石’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石’자로 본 것은 ‘日’자를 착오로 오해한 것이다. 이 오인으로 인하여 현재 전주시 평화동(원래는 구이면) ‘윈석구’ 마을로 보았던 것이다.

셋째, 이 책의 간기에 나타나는 지명은 ‘龜谷’이다.²⁴⁾ 그렇다면 ‘龜谷’은 어

23) 경판본 ‘월봉기’는 ‘由泉’에서 발간된 책은 연도를 알 수 없으나, ‘紅樹洞板’은 1850년대에 많은 책을 출판하였다.(이창현,1995:258참조) 이창현(1995:125)에서는 ‘紅樹洞板’이 ‘由泉’판보다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24) 경판본 한글고전소설의 지명에서도 ‘由洞’을 ‘由谷’으로 사용하고 있다.

디일까? 그간 완판본의 간기에 나타난 ‘龜洞’은 단순히 ‘龜耳洞’이나 ‘龜石里’로 추정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학계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완판본의 ‘龜洞’이 완주군 구이의 ‘龜巖’마을이 분명한 이상, 그간 1823년에 간행된 『별월봉기』의 간기에 나타난 ‘龜谷’은 ‘귀동골’의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이 ‘귀동골’은 마을의 유래를 보여주는 비석에서도, 또 현재에도 자주 쓰이고 있는 마을 이름이다. ‘龜洞’은 ‘귀동골’로 불린다. 줄이면 한자로 ‘龜谷’이다. ‘谷’은 그 뜻이 ‘골, 골짜기’이다. 마찬가지로 ‘洞’도 그 뜻이 ‘골, 골짜기’이다. 한자로 ‘洞’과 ‘谷’은 같은 뜻이다.



道光三年癸未四月日龜谷開板

『별월봉기』는 한글로 쓰인 고전소설이다.²⁵⁾ 비록 한글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배운 사람이 관여해서 만들어야 하는 책이다. ‘龜洞’은 당시 구이면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다. 같은 구이면(현재는 전주시 평화동)에 있지만 ‘석구’ 또는 ‘원석구’ 마을은 이런 요건을 찾기 어렵다.

<『별월봉기』 간기 비교>

전체적으로 볼 때, 현존하는 『별월봉기』는 앞표지와 뒷표지의 배지에 『通鑑』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판이 1916년에 다가서포에서 재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장된 책이 매우 깨끗하고 배지에 인쇄된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된다.

1909년 일제가 검열을 강요하고 판권지를 붙일 것을 강요한 후에야 비로소 판권지에서 여러 책방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판권지 이전에는 오로지 간기에 의존하여 책을 출판한 곳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러

25) 『별월봉기』는 현재 원광대 명예교수인 박순호 교수의 소장본이다. 이 책은 1823년에 발간된 완판본 최초의 한글고전소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간기의 마모로 볼 때 후쇄본으로 보인다.

한 점 때문에 간기에 나타난 지역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중 최초의 고전소설은 1823년 『별월봉기』이다. 이 책은 ‘龜谷’의 지명을 보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출판이 되지 않은 관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책이다. 물론 ‘石龜谷’으로 잘못 오독이 되어서 더욱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다.

또한 1935년에 전주와 완주군이 분할되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완주군 구이면을 배제한 채, ‘龜洞’과 ‘龜谷’을 전주 ‘龜石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완주군 구이면이 1935년 이전에 全州郡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4. 결론

간기에 나타나는 지명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이 발간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전주군 구이면은 1935. 10. 1일 이후로 완주군 구이면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따라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에 나타나는 ‘完’의 범위는 완주군 구이면, 소양면, 상관면 등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에 나오는 지명인 ‘봉성’은 출판 당시 전주군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던 곳이다. 이 ‘봉성’은 현재는 저수지로 변하였으나, 당시는 물 많고 산 좋고 전주와 임실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다.

둘째,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간기에 나오는 ‘龜洞’ 또는 ‘完龜洞’은 현재 완주군 ‘九耳面’을 낳게 한 마을로, 조선시대 면칭이 있던 곳으로 큰 마을이었다. 이곳은 거북바위가 있는 곳으로 ‘귀동, 귀동골, 구암마을’로 불리고 있다.

셋째, ‘龜洞’ 또는 ‘完龜洞’의 지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전주 싸전다리 부근의 ‘完南 龜石里’

로 처리하여 지명 연구에 큰 착오를 일으켰다.

넷째, 『별월봉기』에 나오는 ‘龜谷’을 인근 마을인 ‘石龜谷’으로 잘못 판독하여, 최근까지 ‘원석구’ 마을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간기를 제시하는 당시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살피지 않았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구암 마을인 ‘龜洞’과 ‘龜谷’이 같은 지명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龜洞’을 현재 ‘귀동골’이라 부르고 있고, ‘洞’과 ‘谷’이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라는 사실에서 ‘龜谷’은 ‘龜洞’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봉성’과 ‘龜洞’이 자리한 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고려와 백제시대의 큰 절이 있었고, 서원이 있었던 큰 마을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물이 많아서 한지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지리적인 여건이 이곳에서 책을 생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문헌

-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 문화재관리국, 1987.
- 변주승 역주, 전라도 보유 1, 『여지도서』 48, 디자인 흐름, 2009.
- 신부자, 『전라도 장인 33인』, 전주문화원, 1998.
- 안준영, 『책판』,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4.
-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2016.
- 완주군사편찬위원회, 『完州郡史』, 청웅제지(주) 인쇄부, 1987.
- 완주군지편찬위원회, 『完州郡誌』, 신아출판사, 1996.
- 유재영, 『전북 전래 지명 총람』, 민음사, 1993.
- 유춘동, 「완판(完板) 『조웅전』의 판본」, 『洙上古典研究』 38, 2013, 3
7-62면.
- 이동희, 「근대 전주 지역의 필방」, 『전주학연구』 5, 전주역사박물관, 2
011, 67-95.
- 이동희, 「전주 한지의 역사성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전북사학』 45, 2
014, 299-322.
- 이태영,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집,
2007, 29-54.
- 이태영, 『문학 속의 전라방언』, 글누림출판사, 2010.
- 이태영, 「완판본의 개념과 범위」, 『열상고전연구』 38, 2013, 9-36.
- 이태영, 「완판본에 나타난 刊記의 특징」, 『열상고전연구』 42, 2014, 32
1-350.
- 전상욱, 「한글방각소설 신자료 고찰」, 『열상고전연구』 31, 2010, 143-1
67.
-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 『완주 한지의 역사성과 유적·유물』, 2011.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홍성덕,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전주시·전북
대학교 박물관, 2005.

【Abstracts】

The study on ‘gwigok, gwidong, bongseong’ appeared
in wanpanbon imprints

Lee Tae-yeong

This study is to clarify why six kinds of Korean classical novels were published in this region. therefore, we want to investigate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gwigok’, ‘gwidong’, and ‘bongseong’ in the printed records of the editions.

Because ‘gwidong’ is similar in pronunciation to ‘guseogri’, it was treated as ‘wannam guseogri’. it misreads the ‘gwigok’ in ‘byeolweolbonggi」 as ‘seoggugok’, a nearby village. so, ‘gwigok’ until recently was known as ‘weonseoggu’ village. ‘bongseong’ was located in the area adjacent to ‘gwidong’. the history, cultur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bongseung’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the production of books here. in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gwigok’ and ‘gwidong’ in the publication record are ‘gwiamgol’ villages in Wanju area.

For the study of place names in publishing records, the history, culture, and geographical background of the region should be examined first. it is a necessary thing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in which the wanpanbon korean classic novel is published.

Key words : wanpanbon korean classic novel, imprints, gwigok,
gwidong, bongseong, guseogri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